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Attitudes

김민경(Min Kyeong Kim)¹⁾

김경은(Kyoung-Eun Kim)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s relate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attitudes in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nts were 67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aged 4-6. Instruments were the Social Support Scale (Park, 1985), Maternal Behavior Instrument (Lee, 1986),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and Social Competence Scale (Doh & Falbo, 1994).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others related positively to their self-esteem and positive parenting, an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thers' self-esteem related positively to their positive parenting an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mediat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ey Words : 다문화 가정(multicultural familie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아존중감(self-esteem),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s),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²⁾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oung-Eun Kim, Namseoul University, Maeju Ri, Seonghwan Eup, Cheonan City, Chungchungnam Do, 331-707 Korea
E-mail : leejay48@chol.net

I. 서 론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주요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 될 다문화가족자녀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행정안전부(2008)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는 58,00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국인의 6.5%를 차지하는 수치로, 2007년 44,258명과 비교해볼 때 31.0%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6세 이하가 33,140명으로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그동안 단일민족, 단일혈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한국어와 자녀교육 실태조사(조영달, 200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다문화가정아동의 적응(박준성·정태연, 2008; 이영주, 2008; 정윤정, 2007), 문화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이소희·최운선, 2008),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서현·이승은, 2007),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효과성연구(신효선·김도희, 2008), 아동의 탄력성증진프로그램개발(이양희·정병수·박수진·황새라·김상원·조수연, 2008) 등 대부분 자녀 자신에 국한되었고 그 외 아버지의 양육참여(이진숙, 2007), 외국인아버지를 둔 국제결혼가족과 자녀의 성장(김민정, 2008)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들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에 관한 연구를 거쳐, 최근 들어서는 이들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과 특히 아동기 이

전 사회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대해 간과하였다.

유아기는 생애발달과정상 결정적 시기로서 특히 사회성의 발달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적 능력이란 개인이 자아를 존중하며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Dodge, 1986).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학업성취 가능성의 예측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설명하고 유아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이은정, 1996). 또한 사회적 능력은 청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성공여부를 예측하는 주요지표가 된다(Parker & Asher, 1987).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국내 일반가정의 유아와는 달리 또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다. 부모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언어 및 생활문화와 또래 혹은 교사와 경험하는 언어 및 생활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능력이 일반 유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사소통능력에 문제가 있다. 또한 외모의 차이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게 되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정정희, 2006). 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화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분명하게 인식해나가며 학교생활에서 뛰어난 사회적 기술과 적응을 보이는 사례들(박혜준, 2007)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갖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는데 지금까지 일반가정 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여 부모변인과 사회적 능력간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이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생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다. 양육태도는 유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기초안이 된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하게 된다(Hoffman, 1975). 이처럼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과 보호, 권위의 경험은 관찰되고 모방되어지면서 유아의 가치관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연·한태숙·정인희·박연경·황혜정·구현아, 2006).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의 부모는 유아 스스로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해주며 부모가 정한 것에 대해 매우 확고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 유아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하였다(안재연, 1992), 특히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또래관계에서 더 사교적이고 협동적이며 친사회적이나 이와 상반되게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대감, 의존성, 공격성, 낮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주희, 2001; Huntsinger, Jose, & Larson, 1998).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또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혹은 조언, 도움 혹은 행동으로, 이는 수혜자에게 긍정적인 정서

적·행동적 효과를 미친다(Gottlieb, 1983). 특히 발달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이나 친구의 지지는 가정기능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nowden, Cameron, & Dunham, 199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또한 부모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도모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성발달로는 애착, 사회적 역할습득 등이 언급되었다(Cochran & Brassard, 1979). 유아의 자존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능력과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동료 지지는 어머니의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만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Hoffman, Ushpiz, & Levy-shiff, 1988)를 살펴볼 때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행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혹은 긍정적인 정서상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서영·박성연·Cheah, 2007). Belsky(1984)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도나 결혼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은 영유아의 인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rkan, Schnaas, Wright, Téllez-Rojo, Lamadrid-Figueroa, Hu, Hernández-Avila, Bellinger, Schwartz, Perroni, & Wright, 2008). 따라서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높은 가치 인식 및 긍정적인 자아감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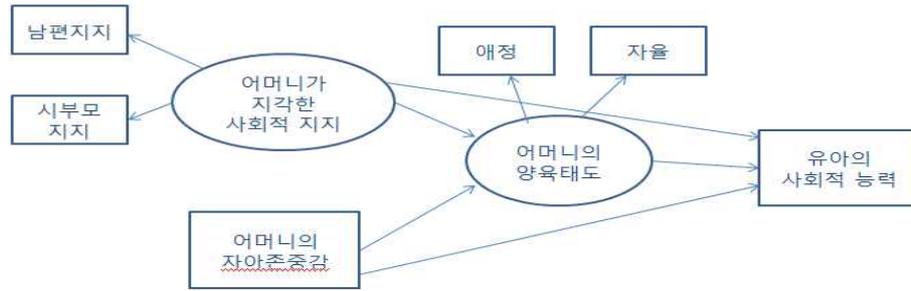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애정, 수용, 독립심권장, 자율적 양육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손화희·윤종희, 1983). 반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를 귀찮게 여기고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비일관적으로 대해 자녀와 거리감을 갖게 된다(Hammen, 2003; Langrock, Compas, Keller, Merchant, & Copeland, 2002;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긍정적인 건강한 생활들과 관련이 있는데(Mitchell, Adams, & Murdock, 2005; Yarcheski, Mahon, Yarcheski, & Cannella, 2004),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높은 수준의 지적인 자극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언어와 생활 습관, 결혼생활 등에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사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지원체계가 얼마나 돈독하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나 민감성 및 온정성, 안정적 애착 형성 및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등 바람직한 양육행동 특성을 많이 보였으며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nberg & MaCluskey, 1986). 특히 자녀양육에서 남편의 지지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수행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원체제로 나타났다(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ballo, 1995; Simos, Lorenz, Wu, & Conger, 199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새로운 문화

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지원체계가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실·이순형·문무경, 2008). 남편으로부터의 지지는 결혼생활적응 및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편의 지지는 남편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남편과의 협력체계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이 자녀의 발달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에 착안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사회의 상이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머니로서 자질을 갖추고 양육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볼 때 어머니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성 원으로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유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존감, 양



<그림 1> 연구모형 :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육태도가 그들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양육태도가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매개하는 변인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세 이상 유아를 둔 결혼이민여성과 자녀이다. 표집은 대상자의 접근에 대한 한계로 인해 비확률표집에 해당되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 가정에 만 4세 이상 유아 1명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과 광주광역시, 나주, 강진, 해남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포함시켰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지역과 해당지역에서의 표본수는 대도시(서울과 광주)이 30명, N시 23명, H군 21명, K군 13명 총 87명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

다(<표 1> 참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문화가정자녀 어머니의 출신국은 필리핀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28.6%, 베트남 22.2%로 각각 나타나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민여성 주요국을 반영하였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60.0%, 있는 경우도 40.0%나 되었다. 가정월평균소득은 100만 이하가 44.9%를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1만에서 200만원이 30.6%, 201만에서 300만원이 10.2%로 각각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4년 이하가 19.7%, 5년에서 8년이하가 21.2%로 나타났으며 9년 이상이 5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특성에서는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이 31.3%, 3명이 19.4%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52.3%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범위는 4~6세로 4세가 20.9%, 5세가 35.8%, 6세가 43.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어린이집 교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양육지도사가 구조화된 질문지로 결혼이민여성에게 일대일로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응답한 내용을 설문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결혼기간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온 지 대부분 5년 이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중간 수준으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N(%)
출신국	필리핀	22(34.9)	직업유무	없음	38(60.0)
	베트남	14(22.2)		있음	26(40.0)
	중국	18(28.6)	자녀성별	남	34(52.3)
	일본	8(12.7)		여	31(47.7)
	태국	1(1.6)			
가정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2(44.9)	자녀수	1명	21(31.3)
	101-200만원	20(30.6)		2명	30(44.8)
	201-300만원	5(10.2)		3명	13(19.4)
	300만원 이상	2(4.0)		4명	3(4.5)
결혼기간	4년 이하	13(19.7)	자녀연령	4세	14(20.9)
	5년-8년 이하	14(21.2)		5세	24(35.8)
	9년 이상	39(59.1)		6세	29(43.3)

*N(%) : 무응답은 기재하지 않음.

면접원과 일대일 면접이 가능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의 모국어 질문지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1명당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1시간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5월 11일에서 2009년 5월 30일까지이다. 설문지는 110부를 배포하였으나 87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6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일대일 면접으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양한 변수와 비교적 많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되다보니 결혼이민여성이 답변을 주저하거나 꺼리는 경우도 있어 측정하지 못한 문항들도 더러 있었다. 이처럼 부실기재된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부수가 확보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해 기능적 속성을 중심으로 사회망 구성원들을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지지제공자를 남편, 시부모 영역으로 나누고 각 출처별로 다차원의 지지정도를 물을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서적 지지에 ‘나의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 정보적 지지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충고해 준다’, 물질적 지지에는 ‘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a 계수는 .83로 나타났다.

2)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fer

(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이원영(1986)이 번안·수정하여 타당도 검증을 거친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의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애정적 태도 .88, 거부적 태도 .87, 자율적 태도 .89, 통제적 태도 .84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RSE)는 다수의 연구들(Rosenberg, 1965, 1976)에서 이미 다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4)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Doh와 Falbo(1994)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척도(Social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Doh와 Falbo(1994)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은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

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대인적응성 Cronbach's α =.82, 인기도/지도력 Cronbach's α =.83, 사회적 참여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양육태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RMSEA 값이 .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Steiger, 1990) CFI와 TLI는 .95 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과 AMOS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양육태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애정	거부	자율	통제		시부모지지	남편지지
양육 태도	애정					.60***	.46***	.55***
	거부					-.34**	-.28*	-.19
	자율					.34**	.32**	.43**
	통제					.22	-.02	.37**
자존감							.29*	.49***
사회적 능력	대인 적응성	-.06	.06	-.04	-.16	.03	-.15	.01
	지도력	.27*	-.25*	.26*	-.00	.14	.12	.29*
	사회적 참여	.49***	-.24	.32*	-.01	.26*	.38**	.42**

* $p < .05$ ** $p < .01$ *** $p < .001$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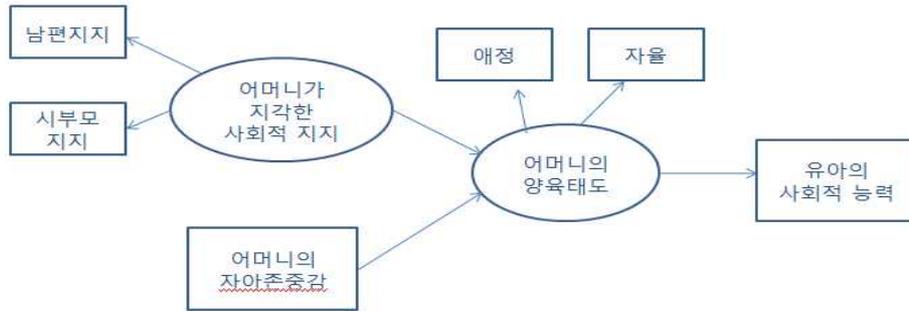
1.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존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지 중 시부모지지는 애정적 양육태도($r = .46, p < .001$), 자율적 양육태도($r = .32, p < .01$)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r = -.28, p < .05$)와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시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며 거부적인 양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남편지지는 애정적 양육태도($r = .55, p < .001$), 자율적 양육태도($r = .43, p < .01$), 통제적 양육태도($r = .37, p < .01$)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애정적 양육태도($r = .60, p < .001$), 자율적 양육태도($r = .32, p < .05$)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r = -.34, p < .01$)와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지만 거부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시부모지지($r = .29, p < .05$), 남편지지($r = .49, p < .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시부모나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사회적 참여($r = .49, p < .001$), 지도력($r = .27, p < .05$)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적 양육태도도 사회적 참여($r = .32, p < .05$), 지도력($r = .26, p < .05$)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지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지도력과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5, p < .05$).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참여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6, p < .05$).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참여도는 높음을



<그림 2> 기본 모형 :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완전매개모형

<표 3> 기본 모형의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사회적 지지 --> 양육행동	.49**	.49**	.16	3.13
자존감 --> 양육행동	.36**	.40**	.14	2.78
양육행동 --> 유아의 사회적 능력	.44***	.31***	.09	3.43

** $p < .01$ *** $p < .001$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중 시부모지지는 유아의 사회적 참여($r = .38, p < .01$)와 남편지지는 사회적 참여($r = .42, p < .001$) 및 지도력($r = .29, p < .05$)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시부모 및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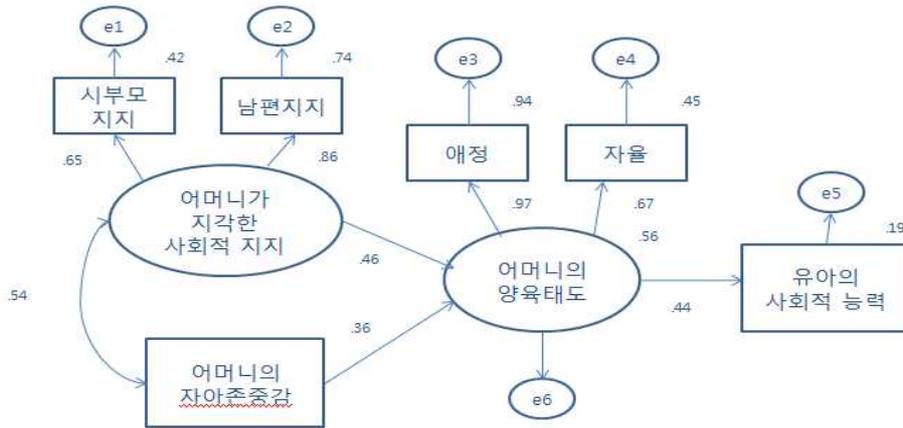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양육태도¹⁾가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양육태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 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그림 3> 참조).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양육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7} = 6.23, p = .51, TLI = 1.02, CFI = 1.00, RMSEA = .00$).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1)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모형에서는 '애정'과 '자율'의 두 요인만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애정과 자율은 각각 거부와 통제와는 상반되는 축에 놓인 요인으로 간명성을 고려하여 두 요인만을 포함하였다.



<그림 3>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완전매개모형

추가하여 양육행동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5}=3.28$ $p=.65$, TLI=1.02, CFI=1.00, RMSEA<.001). 부분매개모형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능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자녀의 사회적 능력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4>, <그림 4> 참조).

하지만, χ^2 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된 기본 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다($\Delta\chi^2_{df=2}=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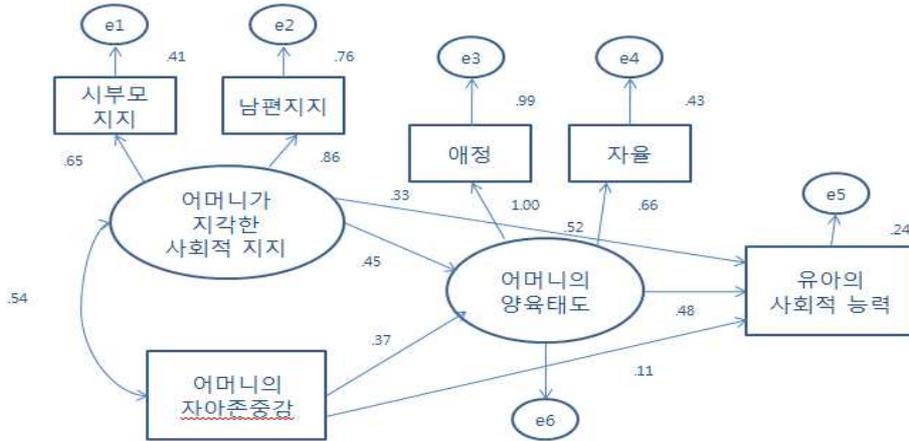
$p>.05$). 이는 보다 간명한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이었던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2, 3> 참조).

최종모형에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태도를 통한 매개효과는 a 의 효과와 b 의 효과를 곱한 ab 로 정의된다(사회적 지지가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또한 a_1 과 b 를 곱한 a_1b 로 정의된다(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 와 a_1b 에 대한 Z 검증(Sobel, 1982)을

<표 4>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계수	S.E	C.R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 어머니의 양육행동	.46**	.16	3.04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 어머니의 양육행동	.37**	.15	2.95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 유아의 사회적 능력	.33	.15	1.6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 유아의 사회적 능력	.11	.12	.74
어머니의 양육태도 --> 유아의 사회적 능력	.28*	.14	1.41

* $p<.05$ ** $p<.01$



<그림 4>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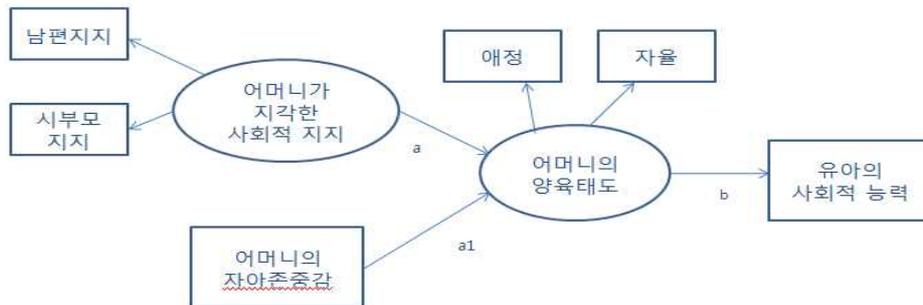
실시하였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위 식에서 SE 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는데, SEa 는 a 의 표준오차를 나타내고, SEb 는 b 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표 3에 제시된 a , b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개효과 ab 는 .152이고, $SEab$ 는 .014로 나타났다. 이 때 Z 는 33.75이므로 $\alpha=.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 ab 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a 와 b 의 개별적인 검증에서도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

지는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매개효과 a_1b 는 .124이고, SEa_1b 는 .014로 나타났다. 이 때 Z 는 9.84이므로 $\alpha=.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 a_1b 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a_1 과 b 의 개별적인 검증에서도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존감은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



<그림 5>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양육태도를 취하고 이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대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높은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며 거부적인 양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바람직한 양육태도 특성과 관련되며 부적절한 양육을 감소시킨다(Crockenberg & McCluskey, 1986; 신숙재, 1997)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체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한국어 및 한국생활에

낮설어 늘 새로운 것에 적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응에 있어서도 사회적 호위대(Social Conoy)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실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심리적 위로와 생활정보 등을 남편과 친구, 시부모에게서 받는 편이며 특히 남편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큰 편이다(최연실 외, 2008). 특히 결혼이민 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 즉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최형성, 2009)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편이나 부모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지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적응능력을 높여주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반영되어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율성을 도모하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는 선행연구들(박서영 · 박선영 · Cheat, 2007; Belsky & Pensky, 1990; Surkan, Schnaas, Wright, Téllez-Rojo, Lamadrid-Figueroa, Hu, Hernández-Avila, Bellinger, Schwartz, Perroni, & Wright, 200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선행연구(양순미 · 정현숙, 2006)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결혼생활적응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다

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나 지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인다는 선행연구결과(박서영 외, 2007; 박주희, 2001; Huntsinger et al., 1998)와 일치한다. 이는 일반가정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유사한 역동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반면, 거부적이며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심어주어 자녀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함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최형성, 2009)는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은 자녀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한국문화에서의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한국문화에서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 및 부모교육, 부모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남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고 합리적인 지도와 격려를 하게 되어 자녀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주요한 스트레스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과정을 비교적 짧은 시기에 경험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함에 따라 이들의 바람직한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지원체계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실 외,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은 결혼생활에서의 적응이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즉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이끌어내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는 건강하고 유능한 개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율성을 도모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Aunola, Nurmi, Onatsu-Arivilommi, & Pulkkinen, 1999). 즉 어머니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자녀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다(Caldji, Diorio, & Meaney, 2000; Essex, Klein, Cho, & Kalin, 2002).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고 이는 모자녀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결국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낮추게 될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되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면,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양육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자녀에게 안정감 및 대인관계에서의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태도의 매개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 있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남편 및 부모로부터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더불어 자녀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가

정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다 보니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주로 부모 변인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실제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 변인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변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 기질, 자녀의 정서능력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변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양육행동만을 포함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외에 어머니의 출신국가, 문화적응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 신장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남편과 시부모의 지지만을 포함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후연구에서는 민간 혹은 정부차원의 지지까지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을 어머니가 지각한 것으로 측정하였는데 가능하다면 교사와 아버지가 측정한 것까지 포함하였다면 더 신뢰로운 측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능력에 대한 다면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모형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정(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여러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연 · 한태숙 · 정인희 · 박연경 · 황혜정 · 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 박서영 · 박성연 · Cheat, C. S. L.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 · 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 양육목표,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성 · 정태연(2008).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52-153.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준(2007).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 개원심포지엄자료집, 141-175.
- 서현 · 이승은(2008).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손화희 ·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1.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효선 · 김도희(2008). 농촌지역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연구.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180-181.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행동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윤현선(1983).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 최운선(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63-185.
- 이양희 · 정병수 · 박수린 · 황새라 · 김상원 · 조수연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탄력성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2008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133.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은정(1996). 부모역할지체체계와 유아의 인기도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정윤정(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2006).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최연실 · 이순형 · 문무경(2008). 농촌거주 결혼이민 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연구*, 15(3), 225-248.
- 최형성(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

-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2), 197-211.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8). 충남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한국어구사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방안.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 161-177.
- 행정안전부(2008). 외국인주민실태조사.
- Aunola, K., Nurmi, J., Onatsu-Arvilommi, T., & Pulkkinen, L. (1999). The role of parents' self-esteem, mastery-orientation and social background in their parenting styl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0, 307-31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HImde R. A. & Steven-Hide, J.(Ed.).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193-217). Oxford, England : Oxford.
- Brunelli, S. A.,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ballo, L. R. (1995). Mothers' reports of paternal support :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 Palmer Quarterly*, 41, 152-171.
- Caldji, C., Diorio, J., & Meaney, M. J. (2000). Variations in maternal care in infancy regulate the development of stress reactivity, *Biological Psychiatry*, 48, 1164-1174.
-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rockenberg, S., & McCluskey, M. (1986). Change in maternal behavior during the baby's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7, 746-753.
- Dodge, K.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Essex, M. J., Klein, M. H., Cho, E., & Kalin, N. H. (2002). Maternal stress beginning in infancy may sensitize children to later stress exposure : effects on cortisol and behavior. *Biological Psychiatry*, 52, 776-784.
-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Hammen, C. (2003).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women. *Journal of Affect and Disorder*, 74, 49-57.
- Hoffman, M.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607-622.
- Hoffman, M. A., Ushpiz, V., & Levy-shiff, R. (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4), 307-316.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en, S. L. (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Langrock, A. M., Compas, B. E., Keller, G., Merchant, M. J., & Copeland, M. E. (2002). Coping with the stress of parental depression : Parents' reports of children's coping,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1, 312-324.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

- chology Review*, 20, 561-592.
- Mitchell, D. K., Adams, S. K., & Murdock, K. K. (2005) Associations among risk factors, individual resources, and indices of school-related asthma morbidity in urban, school-aged children : a pilot study. *Journal of School Health*, 75, 375-383.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imons, R. Lorenz, F., & Wu, C.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368-381.
- Snowdon, A. W., Cameron, S., & Dunham, K. (1994).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coping resource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function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6(3), 63-76.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pp.290-312). San Francisco : Jossey-Bass.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urkan, P. J., Schnaas, L., Wright, R. J., Téllez-Rojo, M. M., Lamadrid-Figueroa, H., Hu, H., Hernández-Avila, M., Bellinger, D. C., Schwartz, J., Perroni, E., & Wright, R. O. (2008) Maternal self-esteem, exposure to lead, and child neurodevelopment. *Neurotoxicology*, 29(2), 278-285.
- Tellez-Rojo, M. M., Hernandez-Avila, M., Lamadrid-Figueroa, H., Smith, D., Hernandez-Cadena, L., & Mercado A. (2004). Impact of bone lead and bone resorption on plasma and whole blood lead levels during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Epistemology*, 160, 668-678.
- Yarcheski, A., Mahon, N. E., Yarcheski, T. J., & Cannella, B. A. (2004). A meta-analysis of predictors of positive health practic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 102-108.

2009년 6월 25일 투고, 2009년 8월 24일 수정
2009년 9월 11일 채택